

# 전북 섬유패션산업 현황 자료

## 1. 섬유산업 현황

### □ 위상 지표

구 분	섬유업종		제조업	
	전국	전북지역(전국비중)	전북지역	섬유업종 비중
사업체수(개)	45,200	860 (1.9%)	10,040	860 (8.6%)
종사자수(명)	304,063	8,214 (2.7%)	109,029	8,214 (7.5%)
생산액( '11년)	775 (십억원)		부가가치액	260 (십억원)
수출·입금액 ( '13년 기준)	수출 : 553 (백만불) 수입 : 81 (백만불)		내수판매	773,354 (백만원)
가동률( '13년 기준)	지역평균 5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1인 이상) 및 광업제조업조사(10인 이상)

### □ 위상 분석

#### ○ 사업체수 및 종사자 현황

- 2012년 기준 1인 이상 전북 섬유패션산업은 860개사, 종사자수는 8,214명으로 전국 섬유업종 대비 각각 1.9%, 2.7%, 전북지역 제조업 대비 각각 8.6%, 7.5%의 비중을 나타냄
- 10인 이상의 경우 전북지역 섬유업체 수는 190개사로 전북지역 제조업체수 대비 10.9%, 종사자 수는 5,770명으로 6.8%의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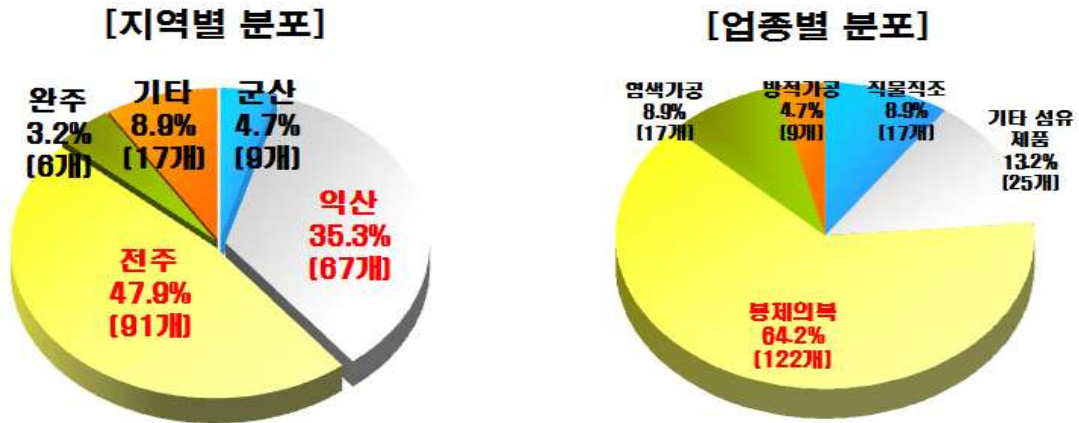
#### <전라북도 섬유산업 현황>

구 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제조업	1,739	85,152
섬유업종	190 (10.9%)	5,770 (6.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2012년)

○ 지역별·업종별 분포

- 전북지역 10인 이상 섬유패션업체는(190개사)는 전주, 익산에 밀집(83.2%)되어 있으며, 업종별로 봉제의복 업체가 64.2% 비중을 차지



자료 : 통계청 기초통계조사(10인 이상, 2012년 기준)

○ 생산현황

- 2013년 전북 섬유업체 중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114.5), 봉제의복 제조업(132.5) 등의 생산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고수준은 봉제의복 제조업(346.3)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 섬유산업 수급 현황>

(단위 : 2010년=100)

구분	업종별	생산현황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전북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90.2	102.9	90.7	98.4	72.4	118.3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82.8	114.5	78.9	104.5	65.3	103.9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29.9	116.9	127.1	118.7	144.6	147.6
	편조원단 및 편조제품 제조업	60.3	54.8	60.6	54.9	71.6	115.6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107.3	97.3	107.3	97.3	-	-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73.8	90.2	82.3	85.6	37.3	116.2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107.9	123.1	106.5	122.4	138.4	301.8
	봉제의복 제조업	110.7	132.5	108.0	127.9	158.8	346.3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97.5	88.8	97.3	88.6	0.0	0.0
	화학섬유 제조업	96.7	99.0	97.3	101.0	139.2	108.9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 동향조사(10인 이상 사업체 조사, 2013년)

○ 수출입 현황

- 2013년 전북 섬유산업 수출은 553백만불로 전국 대비 3.5%, 수입은 81백만불로 전국 대비 0.6%를 점유
- 한편 2013년 전북 섬유산업은 전북 내 전 산업 대비 수출은 5.5%, 수입은 1.8%를 차지

<전라북도 섬유류 수출입 현황>

구 분	섬유업종		전 산업	
	전국	전북지역(전국비중)	전북지역	섬유업종 비중
수출(백만불)	15,954	553 (3.5%)	10,115	553 (5.5%)
수입(백만불)	13,520	81 (0.6%)	4,470	81 (1.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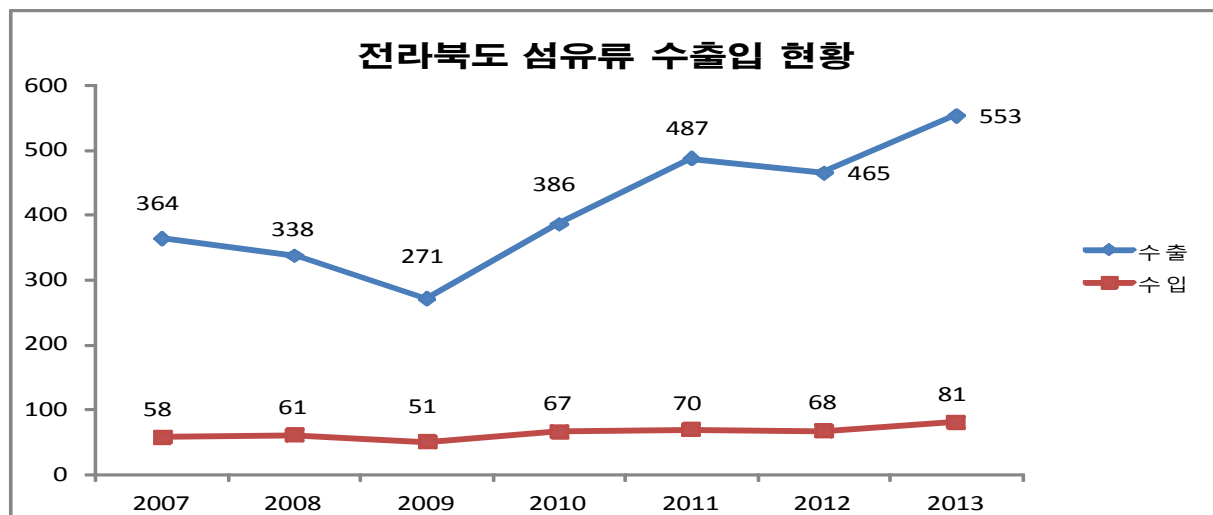
<전라북도 섬유류 년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07~’13)
수 출 (증감률)	364 (7.0)	338 (-7.0)	271 (-19.9)	386 (42.2)	487 (26.2)	465 (-4.5)	553 (18.9)	7.2
수 입 (증감률)	58 (-2.8)	61 (5.5)	51 (-15.7)	67 (29.9)	70 (5.1)	68 (-2.6)	81 (19.0)	5.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단위 : 백만불)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 2013년 전북지역의 섬유류 품목별 수출은 폴리에스터 섬유가 286백만불로, 전년 대비 17.4% 증가하여 1위를 차지

#### <전라북도 섬유류 품목별 수출 현황>

(단위 : 백만불, 전년대비 %)

순위	품목명	2012년		2013년	
		금액(천불)	증감률(%)	금액(천불)	증감률(%)
1	폴리에스터섬유	244,086	-9.6	286,485	17.4
2	폴리에스터사	75,034	-2	85,666	14.2
3	순면사	35,211	56.6	54,182	53.9
4	장갑	28,348	-3.2	38,593	36.1
5	기타 합성섬유	12,045	-18.7	24,020	99.4
6	혼방면사	5,879	155.5	10,701	82
7	기타 인조섬유 장섬유사	9,403	-36.7	10,228	8.80
8	유아복	11,022	11.2	7,115	-35.4
9	양말	4,243	-7.7	5,148	21.3
10	기타의 섬유제품	3,243	3.2	5,143	58.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 2013년 국가별 섬유류 수출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전년대비 32.9% 증가한 82백만불을 기록 하였으며, 다음으로 미국(82백만불), 독일(36백만불)이 차지. 또한, 인니(28백만불), 베트남(24백만불) 등 동남아 국가와의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
- 2013년 국가별 섬유류 수입은 중국이 전년대비 22.7% 증가한 21백만불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4백만불), 일본(11백만불)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섬유류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천불, 전년대비 %)

순위	수출			수입		
	국가명	금액(천불)	증감률(%)	국가명	금액(천불)	증감률(%)
1	중국	82,377	32.9	중국	20,627	22.7
2	미국	81,662	10.8	베트남	14,288	24.3
3	독일	36,104	25.9	일본	10,987	96.0
4	인도네시아	28,196	30.0	미국	9,988	-10.1
5	베트남	24,215	74.3	인도	3,477	60.4
6	이탈리아	23,793	17.6	태국	3,087	2.6
7	브라질	20,928	13.4	스리랑카	2,470	-1.1
8	벨기에	18,101	17.5	캄보디아	2,007	181.9
9	홍콩	16,635	55.2	네덜란드	1,680	161.7
10	멕시코	15,965	4.7	오스트리아	1,664	-54.1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 □ 주력생산 품목의 경쟁력 분석

### ○ 대외 수출경쟁력(가격 경쟁력)

- 2013년 전북 섬유업종의 품목별 가격 경쟁력은 타 지역에 비해 섬유사와 섬유원료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섬유직물과 섬유제품은 비교적 낮은 편임

#### <전라북도 섬유류 품목별 가격 경쟁력>

(단위: 불)

지역	섬유원료 (kg당 가격)	섬유사 (kg당 가격)	섬유직물 (kg당 가격)	섬유제품 (kg당 가격)
서울	2.2	5.4	10.5	7.8
강원	2.0	5.2	5.2	9.0
대전	4.4	11.6	8.2	16.6
충남	1.6	4.4	6.1	3.1
충북	1.7	4.5	8.7	6.8
인천	2.3	6.4	9.0	7.5
경기	1.7	4.4	10.2	5.2
광주	0.6	3.9	8.7	6.1
전남	2.6	8.1	10.6	5.8
전북	1.8 (8)	3.5 (1)	14.8 (15)	9.6 (14)
부산	2.2	5.2	10.2	5.0
경남	1.3	7.0	8.1	2.8
울산	2.5	3.7	4.3	3.6
대구	1.1	3.6	9.2	4.6
경북	1.6	3.6	6.0	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2013년)

□ 지역 섬유산업 문제점

구 분	전북 섬유산업 문제점	세부 현황 분석
인력현황	종사자 평균 인력의 고령화	○ 전북 의류업체 대표자 평균연령 51.2세 - 50대(40.1%), 40대(35.3%), 60대 이상(14.5%), 30대(9.2%), 20대 이하(1.0%)로 분포
	낮은 인건비,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어려움	○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산재보험가입률(69.9%), 화재보험가입률(66.2%) - 남성은 2.2명, 여성은 13.1명 - 4대보험 가입자는 전체 60.6%를 차지(9.3명) ○ 인력 수급의 방법은 지역정보지(54.4%)가 가장 많았으며,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임금(50.7%)을 응답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열악	○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이 전체 81.5%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훈련과 업무는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이 파악 ○ 교육훈련 희망분야로 '작업현장 훈련(80.9%)'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의 노하우 습득을 필요
사업장 현황	대부분 사업장 임차 및 환기시설 교체가 시급	○ 전북지역의 사업장 임차비율 80.9%를 차지 - 전월세(44.1%), 월세(22.8%), 전세(14.0%), 자가(19.1) ○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사업장 환경 개선사항 중, 가장 시급한 것은 환기시설(43.4%)로 응답 - 환기시설(43.4%), 쉼터 등 편의/복지시설(27.9%), 조명 및 배선(11.8%), 방음시설(4.4%), 수하물 집하 시설(3.7%), 기타(8.8%)
브랜드 현황	자사 브랜드 미보유 및 대부분 OEM 하청 유형	○ 전북지역의 업체 비율은 임가공이 66.2%를 차지 - 임가공(66.2%), 임가공+프로모션(14.7%), 재단전문업체(10.3%), 프로모션(3.7%), 마무리/완성업체(3.7%), 샘플패턴업체(1.5%) ○ 전북지역의 자사브랜드 보유현황은 20.6%에 불과(79.4% 미보유)

구 분	전북 섬유산업 문제점	세부 현황 분석
생산현황	내의/잠옷, 유아동복 등 노동의존형 저가가가치 산업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지역 의류 제조기업의 주력 생상품목은 기타의류(69.9%)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의류(69.9%), 유니폼류(6.6%), 여성정장류(5.9%), 레저/스포츠웨어(5.1%), 의류액세서리(5.1%), 남성정장류(3.7%), 캐주얼웨어(3.7%)</li> </ul> </li> <li>○ 기타의류는 내의/잠옷(54.7%), 유아동복(42.1%), 생활한복(2.1%), 목욕가운(1.1%)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업이 주력 생상품목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발주처 요구(34.6%)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li> </ul> </li> </ul>
설비현황	대부분 필요 설비를 임대하여 생산능력을 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지역 의류 제조기업이 설비 부족 시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비임대(47.1%), 장비구매(25.7%), 생산포기(16.9%), 하청생산(9.6%), 기타(0.7%)</li> <li>- 월평균 장비 임대 비용은 31.6백만원</li> </ul> </li> </ul>
마케팅 현황	취약한 마케팅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거래처 확보 마케팅 능력이 취약하다고 응답한 업체가 55.9%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래처 확보(55.9%), 홍보/광고(15.4%), 가격협상(11.0%), 판매망 관리(7.4%), 시장정보수집(6.6%), 브랜드(2.9%), A/S(0.7%)</li> </ul> </li>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판로방법은 주문-직접납품 방법이 69.9%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문-직접 납품(69.9%), 프로모션업체(9.6%), 자기판매(8.8%), 직접내수판매(6.6%), 수출벤더(3.7%), 기타(1.5%)</li> </ul> </li> <li>○ 판로방법 선택의 이유로 대금지급의 안정성이 60.3%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금지급 안정(60.3%), 생산물량 적정(16.2%), 수주물량 적정(15.4%), 납품단가 유리(7.4%), 기타(0.7%)</li> </ul> </li> </ul>
경영현황	기존 고객에 의존하고 있어, 신규고객 확보를 위한 판로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이 전년 대비 이익이 증가하는 이유로 대부분이 기존고객주문량의 증가(69.2%)를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고객 주문량 증가(69.2%), 신규고객증가(12.8%), 계정에 따른 자연 증가(5.1%), 임대료/관리비 간접비절감(5.1%), 기타(7.7%)</li> </ul> </li> </ul>

구 분	전북 섬유산업 문제점	세부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이 전년 대비 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로 대부분이 기존고객주문량의 감소(63.2%)를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고객 주문량 감소(63.2%), 신규고객감소(31.6%), 원자재/인건비 생산원가 증가(5.3%)</li> </ul> </li> </ul>
	섬유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에 대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의류제조 산업에 대한 평가에 대해 48.5%가 절망적으로 응답</li> <li>○ 향후 3년간 사업장 운영계획에 대해 58.8%가 규모 유지라고 응답하였고, 규모확대는 7.4%, 규모축소 27.9%차지</li> <li>○ 지역별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60.8%가 ‘필요없음’이라고 응답</li> <li>○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유 중, 세금징수 부담이 42.9%를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금징수 부담(42.9%), 대부분 무자료거래(28.6%), 4대 보험부담(14.3%), 기타(14.3%)</li> </ul> </li> </ul>
정책지원 현황	생산/기술 분야의 기술인력의 부재로 인한 관련 분야의 컨설팅을 필요로 하며, 판로·수출 지원에 대한 의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희망 집적지 지원정책으로 비입주형 지원센터 운영을 44.9%로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입주형 지원센터(44.9%), 필요없음(16.9%), 공동사업지원(14.0%), 아파트형 공장(12.5%), 산업단지 조성(11.8%)</li> </ul> </li> <li>○ 전북지역 의류제조기업의 필요 자금지원으로 인건비 지원을 55.9% 응답하였고, 다음은 원자재 지원이 26.5%</li> <li>○ 필요 인력지원으로 기술인력(50.7%), 인력유지(30.9%) 차지</li> <li>○ 판로·수출지원에 대한 응답으로 81.6%가 필요 없다고 응답</li> <li>○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생산/기술(28.7%)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기술(28.7%), 거래/물류(19.9%), 고객/마케팅(8.1%), 사업장 이전(3.7%), 회계/세무(2.9%), 사업전환(2.9%), 인사/노무(2.2%), 기타(0.7%)</li> </ul> </li> </ul>

자료 : 한국의류산업협회, ‘국내 의류제조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013)’



## □ 지역 섬유산업의 구조 개선 방안

### ○ 단기과제

- 인력수급 촉진을 위한 낙후환경 개선
  - 낮은 임금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모색
- 생산성 제고 및 기술단절 방지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
  - 기술전수 프로그램 마련 및 현장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통해 기술의 원활한 전수와 기술 숙련기간 단축으로 생산성 제고 및 기술단절을 방지
- 생산기술 고도화를 위한 설비부족의 해결
  - 기업의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생산능력의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특수장비 및 고가장비를 특정기관이 구매하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 융합섬유 분야 중점 육성
  - 정부투자를 통해 습식방사기, 내염화 섬유제조설비, 제·편직기, 부직포 제조설비, 성형·봉제 설비를 구축하여 융합섬유 R&D인프라 기반 구축
  - PAN 및 셀룰로오스계 섬유 습식 방사 및 혼방·복합연사, 커버링 등을 통한 하이브리드 원사 개발로 안정화 섬유 시생산(샘플) 제조기술 확보
  - 안정화 섬유 물성 및 분석 관련 방법 및 규격화 방법 확립을 통한 신뢰성 기반구축

\* 자료 : 전북테크노파크, '2014/2018 전라북도 신지역특화산업 종합발전 로드맵(2013)'

### ○ 중장기 과제

- 생산과 판로의 연계기반 강화로 구매-생산-판매가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독자적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생산제품 공동판매장 설치 및 운영지원
  - 인근지역에 구매, 판매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 생산과 연계하여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벨트화 추진
- 기존 OEM에서 ODM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디자인, 통합마케팅, 브랜드개발 지원

- 디자인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에 디자인 기업·디자이너와 연계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디자인 제품개발력 제고를 위한 협업화 지원
- 기업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시장에 적합한 생산품목, 브랜드,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 미래시장 대응 소재부품 개발

- 세계시장 선점 핵심 친환경 섬유융합 소재부품 개발 : 섬유융합 기반의 개발을 통해 미래의 무역역조 가능성에 대비하고 창조경제 실현과 신성장동력을 창출
- 기초 연구결과 연계·확대 : 국내외 친환경 기반 섬유융합 기초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지원하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함으로써 기술개발 속도를 가속화
- 개방형 기술개발을 위한 글로벌 협력 : 글로벌 소싱 참여를 위해 해외 R&D 자원과 아이디어를 확보하여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필요

\* 자료 : 전라북도, '친환경 섬유융합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 전략수립 최종 보고서(2014)'

#### - 친환경 소재부품 글로벌 리더 도약을 위해 성장견인형 발전환경 구축

- 친환경 섬유융합 소재부품 허브 구축 : 환경 제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자동차, 건축재 등 분야에 중소·중견기업들이 핵심소재부품 개발에 활용하도록 지원
- 친환경 섬유융합 소재부품 중소기업의 성장통 극복 지원 : 성공 유전자(DNA)를 가진 중소기업의 성장통 극복을 지원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견기업으로 육성
- 미래형 섬유소재·부품 인재양성 : 맞춤형 인력지원 시스템 강화로 소재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경영능력 배양

\* 자료 : 전라북도, '친환경 섬유융합 첨단 소재부품산업 육성방안 전략수립 최종 보고서(2014)'

## 2. 전북지역 섬유패션산업 기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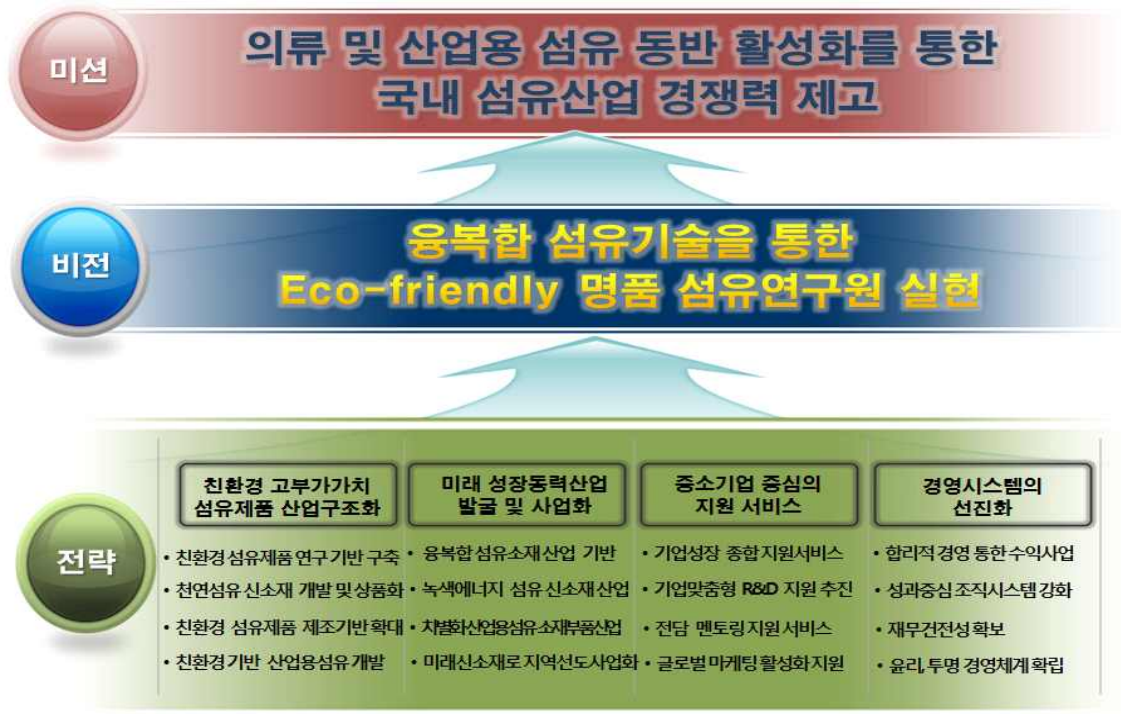
### □ 섬유기관 소개

####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임원	이사장 : 김만식 / 원장 : 백철규
기관연혁	<p>2001. 01 : 『(재)전북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설립』 설립</p> <p>2003. 07 :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변경</p> <p>2005. 02 : 『한국니트산업연구원』으로 명칭변경 (전문생산기술연구소으로 설립근거 변경)</p>
설립목적	섬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핵심기술 개발 및 보급, 전문인력양성,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지원 등을 통하여 섬유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
주요 업무 및 기능	
인원	35명(정원 39명)
조직도	

## □ 지역 섬유기관의 기능(역할) 발전과제

### ○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발전과제



<한국니트산업연구원 비전 및 전략>

- 친환경 고부가가치 섬유제품 산업 구조화
  - 연구원이 개발한 친환경 천연 신소재 한지사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천연신소재 연구개발 및 상품화 기반구축
  - 원사에서 제품 디자인, 마케팅에 이르는 스트림간 협력 강화로 친환경 섬유패션 기업 양성을 위한 신소재 연구센터 및 에코파이버 창업보육센터 운영
  - 글로벌 친환경 시장을 겨냥한 친환경 섬유 제조 인증기업의 확대를 통해 섬유 제품 제조기반의 특성화 유도
  - 제조기업 양성을 위한 제품화 인큐베이터 공간 마련 및 숙련집약형 봉제인력 양성
  - 천연소재 폐기물 활용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및 경량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산업용섬유 개발 및 제품화 연구기반 조성
- 미래 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사업화
  - 산업융합연구기반구축사업을 통한 산업용 섬유개발 및 제품화 연구기반 조성

- 선행 산업용섬유 제조기술 및 제품화 기술 개발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군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으로 확대·육성하고 차별화되고 범용화될 수 있는 시장확대용 실용기술 개발 및 기술 상용화에 주력
  - 지역의 기존 의류제조 기반을 산업용 섬유제품으로까지 확장하여 기술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 서비스
- 중소기업의 연구원과 연계한 산-연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기업 핵심 혁신리더 양성 및 섬유패션 수요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선진 기술개발을 통한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 필요 공통기반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한 중소기업 유망 신시장 선점 지원
  - 애로기술 해결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활용 1:1 멘토링 서비스 지원 확대
  - 중소 제조기업 소상공인 대상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지원센터 설립 지원
  - 맞춤형 동향정보 서비스 제공 및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컨설팅 연계 지원방안 마련
- 경영시스템의 선진화
- 자체 수익확보를 위한 사업(시제품생산, 시험분석 등)운영의 시스템 및 기술력 향상으로 자립화 기반 활성화
  - 조직평가와 개인평가 종합을 통한 전략적 통합 성과관리 제도를 운영하여 능력과 성과중심의 실질적인 인사보수 차등 강화
  -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된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재무목표 관리시스템 상시운영 및 윤리경영 실질성과 창출을 위한 실행평가지표 개발·운영